



發行人 鄭在熙 總編輯 李光燁 印刷所 東大新聞社 電話 8131~9 本報地址 東大新開路26號

圖書館現代化 계획 확정

예산 증액, 施設 확장 등

【본보 특파원 서울 22日電】도서관의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 확정되었다. 예산 증액, 시설 확장을 포함하여 도서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金昌熙 교수 국전 대賞

「旋律 조소과 具象 부문에」



국립현대미술관 주최의 제10회 전국미술대전에서 김창희 교수의 「旋律」 조소 부문에 대상을 수상하였다.

서클 활동 기본대책 논의

22日, 서클 지도 교수회의

학생회와 각 서클 지도자들이 모여 22일 오후 2시에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서클 활동의 기본 방향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東國스키부活性化

13日 스키대회에 참가

동국대학교 스키부 소속 선수가 13일 열린 전국 스키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桂山館 30日 개관식

박계산 同門에 감사패 증정

박계산 박사의 동문회인 '桂山館'이 30일 개관식을 가졌으며, 박계산 박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學校지도위원회 설치

學生活動지도 육성 등 심의

학교 지도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회와 각 서클의 활동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등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今週一言

多集家妙華, 結縷爲步趨. 有情積善根, 後世轉殊勝. 이렇듯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후생이 번영하게 된다.

교육문제 심포지움

10月25日, 사대주최. 교육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심포지움이 10월 25일 사대(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다.

市民佛敎교양大學 講座

10月6日부터 佛敎大學 특강실에서. 시민을 위한 불교 교양 강의를 10월 6일부터 불교대학교 특강실에서 실시한다.

東國書道會 서예전

24~29日, 德壽미술관에서. 동국대학교 서예회가 24일부터 29일까지 덕壽미술관에서 서예전을 개최한다.

第18回 東大新聞社 學術賞 徵集

學生들의 學術熱과 創作熱을 고취하기 위해 제18회 학술상을 모집한다.

東大新聞社 學術賞 徵集

學科別 賞格 및 應募要領.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학술상 모집 안내.

東國人싸이클大會

8백팀이 접수 규모 확대. 동국대학교 사이클 대회가 8백팀의 참가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山岳部 「추계 등반」

동국대학교 산악부가 추계 등반을 계획하고 있다.

高校文學콩쿠르 27日 開催

연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교 문학콩쿠르가 27일 개최된다.

淨化

정화. 마음의 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

리더스 10

다이어스트. 리더스 10 다이어스트 소개 및 구독 정보.

사하라이야기

낙타의 눈물. 사하라이야기 낙타의 눈물 소개.

황皙映作

全圖베스트셀러 1位突破! 황皙映작 소개.

사바의 언덕을 넘어서

재판. 사바의 언덕을 넘어서 소개.

愛情道

사랑, 정, 길.愛情道 소개.

高田스님의 感動의 書!!

살찐 돼지가 되느니, 굶는 소크라테스가 되라. 고田스님의 感動의 書!! 소개.

高田스님의 感動의 書!!

살찐 돼지가 되느니, 굶는 소크라테스가 되라. 고田스님의 感動의 書!! 소개.

리더스 10

다이어스트. 리더스 10 다이어스트 소개.

사하라이야기

낙타의 눈물. 사하라이야기 소개.

황皙映作

全圖베스트셀러 1位突破! 황皙映작 소개.

사바의 언덕을 넘어서

재판. 사바의 언덕을 넘어서 소개.

愛情道

사랑, 정, 길.愛情道 소개.

高田스님의 感動의 書!!

살찐 돼지가 되느니, 굶는 소크라테스가 되라. 고田스님의 感動의 書!! 소개.

高田스님의 感動의 書!!

살찐 돼지가 되느니, 굶는 소크라테스가 되라. 고田스님의 感動의 書!! 소개.

高田스님의 感動의 書!!

살찐 돼지가 되느니, 굶는 소크라테스가 되라. 고田스님의 感動의 書!! 소개.

讀書의 生活化

讀書時間에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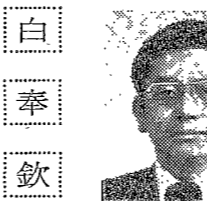
大學의 傳統과 機能

大學의 傳統과 機能은 讀書의 生活化와 讀書時間에 부처와 關聯되어 있다. 讀書은 大學의 本질적인 活動이며, 學生의 學業을 完수시키고 社會에 奉仕할 準備을 갖추는 唯一의 途徑이다. 그러나 現代의 大學은 讀書을 單純히 讀書으로만 認定하지 않고, 讀書을 生活의 一部分으로 認定하고, 讀書을 生活化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讀書時間에 부처는 讀書을 生活化시키는 重要한 因素이다. 讀書은 時間을 費하는 活動이므로, 讀書時間을 如何히 利用하느냐에 따라 讀書의 效果가 大不相同하다. 讀書時間을 充分히 確保하고, 讀書時間을 有效히 利用하면, 讀書의 效果가 大히 높아진다. 그러나 現代의 大學은 讀書時間을 充分히 確保하지 못하고, 讀書時間을 有效히 利用하지 못하여, 讀書의 效果가 大히 낮아지고 있다.

讀書時間을 充分히 確保하고, 讀書時間을 有效히 利用하기 위해서는, 讀書時間을 如何히 確保하고, 讀書時間을 如何히 利用하느냐에 따라 讀書의 效果가 大不相同하다. 讀書時間을 充分히 確保하고, 讀書時間을 有效히 利用하면, 讀書의 效果가 大히 높아진다. 그러나 現代의 大學은 讀書時間을 充分히 確保하지 못하고, 讀書時間을 有效히 利用하지 못하여, 讀書의 效果가 大히 낮아지고 있다.

大學의 傳統과 機能



白 奉 欽

大學의 傳統과 機能은 社會奉仕에 在하여 分析과 批判으로 社會奉仕 임해야 한다. 大學은 社會의 良心을 代弁하고, 社會의 不正을 批判하고, 社會의 進步를 促하는 役割을 수행한다. 그러나 大學은 單純히 批判만 行하는 機構이 아니라, 批判을 行한 후 社會에 奉仕할 準備을 갖추는 機構이어야 한다.

大學의 傳統과 機能은 社會奉仕에 在하여 分析과 批判으로 社會奉仕 임해야 한다. 大學은 社會의 良心을 代弁하고, 社會의 不正을 批判하고, 社會의 進步를 促하는 役割을 수행한다. 그러나 大學은 單純히 批判만 行하는 機構이 아니라, 批判을 行한 후 社會에 奉仕할 準備을 갖추는 機構이어야 한다.

大學, 量보다 質을 重視 해야

口頭試驗 방식 使用으로 공부않고는 卒業 어렵

大學의 傳統과 機能은 社會奉仕에 在하여 分析과 批判으로 社會奉仕 임해야 한다. 大學은 社會의 良心을 代弁하고, 社會의 不正을 批判하고, 社會의 進步를 促하는 役割을 수행한다. 그러나 大學은 單純히 批判만 行하는 機構이 아니라, 批判을 行한 후 社會에 奉仕할 準備을 갖추는 機構이어야 한다.

大學의 傳統과 機能은 社會奉仕에 在하여 分析과 批判으로 社會奉仕 임해야 한다. 大學은 社會의 良心을 代弁하고, 社會의 不正을 批判하고, 社會의 進步를 促하는 役割을 수행한다. 그러나 大學은 單純히 批判만 行하는 機構이 아니라, 批判을 行한 후 社會에 奉仕할 準備을 갖추는 機構이어야 한다.

分析과 批判으로 社會奉仕 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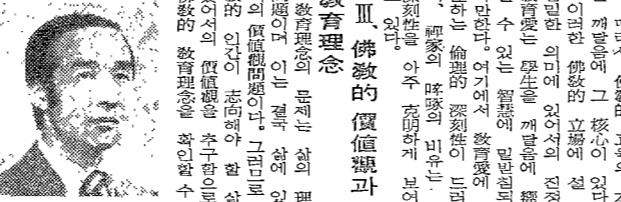
大學의 傳統과 機能은 社會奉仕에 在하여 分析과 批判으로 社會奉仕 임해야 한다. 大學은 社會의 良心을 代弁하고, 社會의 不正을 批判하고, 社會의 進步를 促하는 役割을 수행한다. 그러나 大學은 單純히 批判만 行하는 機構이 아니라, 批判을 行한 후 社會에 奉仕할 準備을 갖추는 機構이어야 한다.

大學의 傳統과 機能

大學의 傳統과 機能은 社會奉仕에 在하여 分析과 批判으로 社會奉仕 임해야 한다. 大學은 社會의 良心을 代弁하고, 社會의 不正을 批判하고, 社會의 進步를 促하는 役割을 수행한다. 그러나 大學은 單純히 批判만 行하는 機構이 아니라, 批判을 行한 후 社會에 奉仕할 準備을 갖추는 機構이어야 한다.

佛敎의 教育問題

佛敎의 教育問題는 佛敎의 傳統과 機能을 如何히 繼承하고, 佛敎의 教育을 如何히 發展시키느냐에 關한 問題이다. 佛敎의 教育은 佛敎의 精神을 傳授하고, 佛敎의 道를 傳授하는 役割을 수행한다. 그러나 佛敎의 教育은 佛敎의 傳統과 機能을 如何히 繼承하고, 佛敎의 教育을 如何히 發展시키느냐에 關한 問題이다.



朴 先 榮

佛敎의 教育問題는 佛敎의 傳統과 機能을 如何히 繼承하고, 佛敎의 教育을 如何히 發展시키느냐에 關한 問題이다. 佛敎의 教育은 佛敎의 精神을 傳授하고, 佛敎의 道를 傳授하는 役割을 수행한다. 그러나 佛敎의 教育은 佛敎의 傳統과 機能을 如何히 繼承하고, 佛敎의 教育을 如何히 發展시키느냐에 關한 問題이다.

教師·學生, 相互形成의 關係 되어야

「개달음」의 敎育學的 導入이 課題

教師·學生, 相互形成의 關係 되어야. 「개달음」의 敎育學的 導入이 課題이다. 敎師와 學生은 相互에 形成을 이루는 關係에 在하여, 敎育을 行한다. 그러나 敎師와 學生은 相互에 形成을 이루는 關係에 在하여, 敎育을 行한다.

發 展

東國의 무궁한 發展과 繁榮을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 <가나다순>
- 대한손해보험협회
 - 회장고재훈
 - 아주산업주식회사
 - 대표이사문태식
 - 효성수산주식회사
 - 대표이사박동호
 - 환 경 청 장 박 준 의
 - 동남갈포공업주식회사
 - 대표이사서병식
 - 국제공항관리공단
 - 이사장윤의균
 - 서울여객자동차주식회사
 - 대표이사이종선
 -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부이사이석용
 - 동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 대표이사정기영
 - 주식회사태평양콘크리트블록
 - 대표이사홍순지
 - 선진기업주식회사
 - 대표이사황경석

신문의 불속

고재산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다. 거울이 맑아야 비로소 사회의 실상을 볼 수 있다. 신문도 마찬가지이다. 진실과 공정을 잃어버린 신문은 사회를 왜곡시켜 준다. 우리는 맑고 정직한 신문이 필요하다.

爭點

現實 참여는 신중하고 냉철한 자세로

지난날의 과오, 根本的 치료 필요해

사회 참여는 단순한 선의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면하고 냉철하게 분석한 후의 행동이다. 우리는 과거의 과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새로운 참여는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

內實 위하 施設 보완 필요

문화·慰樂 시설 設置 시급

사회 복지 시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내실 있는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 문화와 오락 시설의 신속한 설치와 운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문화·慰樂 시설 設置 시급

社會 告

Various small notices and advertisements, including information about a student union and a local business.

후계선·白象의 眞

후계선과 백상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논평이나 기사. 후계선은 전통과 계승을, 백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매점·서점의 발전

매점과 서점의 발전에 대한 기사. 현대 생활 방식에 맞춰서 매점과 서점의 역할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철저해야 生存 施設의 活用으로 福祉 施設 부족 메꿔야

생존 시설의 철저한 활용을 통해 복지 시설의 부족을 메꾸어야 한다는 주장.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어 철저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영서일학부 생활

중영서일학부의 생활 모습. 학부 생활의 질서와 질감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학부 생활의 특징을 설명한다.

전화 교환원

전화 교환원의 역할과 중요성. 통신의 핵심인 전화 교환원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조명한다.

東岳의 知德으로 入門수행

동악산의 지덕(지혜와 덕)을 배우고 수행하는 과정. 자연 속에서 마음과 정신을 기르는 과정에 대해 다룬다.

자동식 교환기 導入, 受容能力 확대

자동식 교환기 도입으로 수용 능력 확대. 통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도입 소식을 전한다.

젊은 되찾는 즐거운 노인大學

젊은 되찾는 즐거운 노인 대학. 노년층에게 활력과 흥미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

時事英語社 直營

現代語學院

英·日

- TIME, Digest, 英文解説, 英作文, 성문綜合英語 TOEFL, 大学生三位一體, Vocabulary, 構文解説 Word Power, AFKN 청취, 大學英語特講, 留學英作
- 日本語初級, 日本語中級, 日本語高級
- 英語會話: English 900 會話, Spoken American 會話

10月2日 개강
수시등록·접수
☎ (269) 6626~7

名教授 名講義

英·日·獨·佛·中·西語

ILLI. 學院

● 大学生必須會話
美人會話短期 course
SCREEN 英語會話
VOCABULARY 12,000
WORD POWER 50,000
성문정통종합영어 三位一體 (Medley 著)
英語實力基礎 (안현필 著)

TIME-DIGEST
TOEFL
留學英語·國史·倫理
NEWSWEEK
AFKN 청취
취직영어특강반
獨語·佛語·中國語
西班牙語
☆ 賢易士試驗準備班
☆ 大学生演文강좌
☆ 시청각영어회화 (KAVEP)

개 每月 1日 學費 후
(문의) 74-1817, 74-8307, 74-8309
(전화) 285-8115, 285-8118, 285-8117

만딩고

1,000만부의 베스트 셀러 영화로 나타난다!
인간의 魔性を 파헤친 問題作!

아카데미상 수상 마터 지비고의 모리스 자르 음악

成人映畫

名畫가 무엇인지 問題作이 무엇인지 보여드립니다
*개강과 함께 휘몰아친 만딩고 선공 完全売盡!

요금 2000원
시각표
11월 10일 10:00
11월 11일 10:00
11월 12일 10:00
11월 13일 10:00
11월 14일 10:00
11월 15일 10:00

團成社

TEL 764 3745

라부리

세법 생활러였는데
공부하기도 좋아
킁킁!
물기도 좋아

피겨 스케이트에서 작품 힌트 얻어

運動感에 의한 평행의 아름다움 시선

이 사진은 大賞受賞作인 「高麗」.

행과 불의 조화

한인 大賞 수상작인 「한복」

한복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의식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한복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 작품은 한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표현하여, 전통을 재발견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한가위 마음의 고향

隨筆

그것도 어느 때가 지나면 손을 댈 때처럼 까맣게 되어 버릴것이고...

한가위에는 대학아름다운 기억들, 그 것도 어느 때가 지나면 손을 댈 때처럼 까맣게 되어 버릴것이고... 라는 문장을 통해, 작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철학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정인영의 소설

정인영 작가는 이번 소설에서, 현대인의 내면적 갈등과 사회적 압박을 주제로 삼았다. 그의 문체는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준다.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며, 내면의 힘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원고 모집

東大新聞社에서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환영합니다.

◇모집부위
詩·小說·隨筆·단편·한글칼럼·論文·詩劇·文化批評·기타

원고 모집

東大新聞社에서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환영합니다.

◇모집부위
詩·小說·隨筆·단편·한글칼럼·論文·詩劇·文化批評·기타

제1회 韓國文學 大賞 受賞 作品 部 당선자와 함께

이날 시상식은 동국대학교에서 열렸으며, 각 부문에서 뛰어난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이 축하를 받았다. 수상자들은 앞으로의 창작 활동에 더욱 열정을 쏟을 예정이다.

인형

그림·수필·시

이 단편집은 현대인의 정서와 감성을 깊이 있게 그려냈다. 특히 '인형'이라는 제목의 단편은,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만다라

金聖東 長篇小說

「만다라」는 문화와 예술의 세계를 그려낸 대작이다. 작가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인형

그림·수필·시

이 단편집은 현대인의 정서와 감성을 깊이 있게 그려냈다. 특히 '인형'이라는 제목의 단편은,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同窓會 會員 冊

5萬圓의 어린이의 優勝과 日進業業을 祝賀합니다. 本會에서는 지난 76년에 慶祝한 東國人名錄(회원명부)을 새로 補充 刷新하고 자 아라왕석에 의거, 個人 및 단체별(직장, 지역, 학부, 연수회, 東友會) 회원 名上을 刊載하여오니 후회에 幸호 願하여 賜 檢印이 祈望됩니다.

아 래

◇보 발 곳: 서울특별시 중구 권동 3가26 東國大學校同窓會 사무국 (우편번호100)

◇접수기간: 1980년 10월 31일까지

◇會員카드

姓 名	한글	한문
出身學科	大學(部)	科(系)
入學年度	修學年度	
勤務處	職位	
勤務處住所	Tel	
自宅住所	Tel	
其 他		

〈上記카드를 오셔서 우편엽서 뒷면에 부착하여 보내주시면, 위 양식에 따라 전화엽서로도 됩니다.〉

※現住所와 근무처 변동시는 즉시 연락바랍니다.

1980年 9月 日

東國大學校 同窓會
會長 崔 載 九

그릴수 없는 사랑의 빔까지도

李仲燮 書翰集

우리나라의 화가 이승만, 그가 창조한 사랑과 예술, 소설보다 더 감동주고 시보다 더 아름다운, 가슴에 原色の 紋身을 새겨넣은 이 찬란한 작품! 예술가이면서 남편이던 서 아이들의 아버지인 그가 남긴 이 기록은 아름답고 눈물겹다. -시인 박재우가 아이들을 불러주고 책을 읽어 주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까. 나는 이 책을 두 번 사지 않았다. 그러나 꼭 한번만 더 사고 싶다. 읽히고 싶은 한 사람을 위하여. -대학생 송경희

第10卷 210頁 本文部 2,500圓 1200頁 豪華裝幀 2,500圓

韓國文學社

新記錄 베스트셀러 1위

韓國文學百萬人新人賞受賞作

만다라

金聖東 長篇小說

당신도 병속의 새를 견뎌왔습니까? 「만다라」는 골담신의 삶의 싸움에서 꽃피는 문제를 함께 주는 소설입니다.

왜? 「만다라」는 문화와 예술의 세계를 그려낸 대작이다. 작가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韓國文學社 73-7328 74-2195

이 시대의 진정한 지성들이 선택한 최고 권위의 문학지

韓國文學 10

韓國文學社 73-7328·74-2195 값 1,800원

10월호에도 우수한 작가들의 문제작품을 골라 실었습니다.

본지 수록 「내부」로 金文洙 作 「노리개」 300枚 全載

'78 한국작가문학상 受賞의 金文洙 作 「노리개」 300枚 全載

「아래의 가족」으로 全商圖 作 「達平씨의 두번째 죽음」

'79韓國文學作家賞 受賞의 李 筍 作 「못난 여편네는」

「바람이 담은 문」의 신선한 感性的 女流詩가 李 筍 作 「못난 여편네는」

세대 新人文學賞 受賞한 具仲瑄 作 「幼年의 바다」

「최환산」으로 具仲瑄 作 「幼年의 바다」

80年代 作家의 頂上에 昇 金聖東 作 「별」

「사랑의 아들」로 李文烈 作 「傷處」

오늘의 作家賞을 받은 申泳澈 作 「日常의 癖」

「눈의 발로」로 申泳澈 作 「日常의 癖」

韓國文學百萬人 新人賞을 받은 朴婉緒 「傲慢과 夢想」

화제를 불러일으킨 二大連環小說 韓末淑 「아름다운 靈歌」

卷末附錄·뉴질랜드 맨스필드文學賞 受賞作 모리스 레드블트 作 「빛」 300枚 全載

제5회 大學生文學作品 當選發表 詩·尹虛根 「흔들리는 構圖」小說·申錫學 「潮水」

名講義노무는 金柳泰 「譽·리피르의 哲學思想」

詩劇 李根培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던 두 개의 섬」

※이밖에 시, 수필, 평론, 서평, 문화스포츠 등 좋은 글이 더 있습니다.